

“MBC 안 떠나요”

‘무한도전’ 김태호 PD, 넷플릭스 이적설 사실 아냐
 ‘무한도전’선 하차 할 듯...MBC측, 멤버 설득 중



“‘무한도전’ 하차설, 넷플릭스행 설 등에 휩쓸려 주목받고 있는 MBC 김태호 PD가 MBC를 떠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PD는 2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넷플릭스라는 회사 자체가 PD가 옮겨 가는 곳은 아니지 않나”라며 항간에 떠도는 그의 넷플릭스행 설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또 MBC를 떠나 프리랜서로 일을 할 것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MBC에서 계속 해야죠”라며 웃었다. 앞서 이달 초 MBC는 오는 3월 말 봄 개편을 앞두고 ‘무한도전’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김태호 PD의 ‘무한도전’ 하차설이 나왔다. 김 PD는 지난 2006년부터 ‘무한도전’을 연출하고 있다. 12년간 MBC 간판 예능이자 국민 예능으로 자리잡은 ‘무한도전’과 김태호 PD는 동의어와 다름 없다. 김 PD는 ‘무한도전’ 연출을 그만두는 것과 관련해 “이미 다 나온 얘기 아니냐”며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자꾸 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부담스럽고 ‘무한도전’ 팀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서 현재 ‘무한도

전’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고 방향을 정해줄 것”이라며 “봄 개편과 관련된 것은 제가 아니라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 PD가 이처럼 말을 아끼는 것은 ‘무한도전’ 멤버들의 동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무한도전’ 멤버들은 김 PD가 연출을 그만두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MBC는 그런 멤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석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무한도전’과 관련해 정식으로 논의한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권석 MBC 예능본부장은 “김태호 PD가 ‘무한도전’ 연출을 그만둔다고 확인했다. 3월 봄 개편에 맞춰 김 PD가 연출을 그만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지난 22일 열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2018 광고주 설명회(어프런트 행사)에서 김 PD는 영상을 통해 광고주들에게 인사했다. 그는 영상을 통해 연출로서든, 크리에이터로서든 올해도 지속적으로 ‘무한도전’과 인연을 맺을 것이라고 밝

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무한도전’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광고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MBC가 준비한 영상이다. 이에 대해 김 PD는 “광고주들에게 인사 하는 정도였다”면서 “어찌됐든 ‘무한도전’의 변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PD는 다음달까지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무한도전’ 연출에 매진한다. 지난 17일과 24일 방송한 ‘무한도전 -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도 흥행과 화제성 모두 잡으며 성공했다. ‘1세대 아이돌’ H.O.T.를 17년 만에 재결합하게 한 것은 ‘무한도전’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 PD는 “저희 작가들과 H.O.T. 멤버들 모두 애 쓴 덕분”이라며 “타임머신 준비를 잘해서 시간여행을 잘 다녀온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토가’의 성공에 취해있을 수는 없고 계속해서 다른 아이템 녹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컬링 등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부상한 여러 종목에 ‘무한도전’이 도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팬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역시 다양하게 살펴보고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달수 성추행 의혹에 영화계 비상

‘신과함께2’ ‘퀵트론’ 등 4편 촬영 마쳐... 고심 중

배우 오달수의 성추행 의혹이 커지면서 영화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가 출연해 올해 개봉을 준비 중인 영화가 네 편이나 되기 때문이다. 네 편 모두 촬영을 마친 상태다. 오달수는 1990년대 연희단거리패 활동 시절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일주일 가까이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26일야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튿날 연극배우 엄지영이 TV에 나와 오달수의 또다른 성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고발하면서 의혹이 재점화했다. 엄지영의 ‘미투’ 직후 tvN은 다음달 첫 방송을 하는 수목극 ‘나의 아저씨’에서 오달수가 하차한다고 발표했다. 오달수와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이미 의혹만으로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터라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문제는 영화다. 네 편 중 세 편에서 주연으로 나와 편집이나 재촬영을 하려 해도 작업이 간단치 않다. 아직 사실관계가 뚜렷이 밝혀지거나 오달수가 의혹을 인정한 상황이 아니어서 섣불리 결정할 수도 없다. 제작진은 추가 폭로 이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오달수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오달수가 주연을 맡아 준비 중인 영화는 세 편이다. 박해일-정웅인과 호흡을 맞춘 영화 ‘퀵트론’은 2016년 11월 크랭크업하고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지훈 감독의 신작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지난해 8월, ‘이웃사촌’은 지난 24일 촬영을 마쳤다. 오달수는 세 작품 모두 주연을 맡았다. ‘신과함께-인과 연’은 이미 올해 8월1일로 개봉일을 받아냈다. 판관 역을 맡은 오달수의 비중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1편 ‘신과함께-죄와 벌’과 연속성을 지닌 인물여서 제작진이 고심하고 있다. ‘신과함께’ 관계자는 “개봉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적절한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류필립·미나 커플 ‘살림하는 남자들2’ 합류

17살 나이 차이를 극복한 사랑으로 주목받은 가수 류필립(29)-미나(46) 커플이 KBS 2TV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2’에 합류한다. KBS는 “배우 송재희-지소연 커플이 28일 방송을 끝으로 하차하고 류필립-미나 커플이 오는 3월 7일 방송부터 합류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작진은 “류필립-미나 커플은 이전 출연진들과는 달리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은 상태에서 더 낯을 끈다”며 “이 커플의 합류에는 특별한 사연도 있는데, 방송에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살림하는 남자들2’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5분 방송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억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아시아의 전통시장 스페셜	25 닥터 365 30 해피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TV스셜 파도야 파도야 40 1박 2일 1~2부	30 930 MBC 뉴스 55 중계방송 제99주년 3.1절 기념식	10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제99주년 3.1절 기념식			00 중계방송 제99주년 3.1절 기념식 50 영재발굴단 스페셜
11	00 3.1절 특집다큐 2부작 (이방인의 3.1운동 1부) 55 UHD 한식의 마음		00 무한도전 토토가 1~4부 스페셜	
12	00 KBS 뉴스 12 20 3.1절 특집다큐 2부작 (이방인의 3.1운동 2부)	00 안녕하세요(재)		00 SBS 뉴스 10 집사부일체(재)
1	05 이웃집 할스(재) 55 2018 K리그1 개막전 <전북: 울산>	20 살림하는 남자들 스페셜	15 MBC 뉴스 30 라디오스타 1~2부 스페셜	20 키스 먼저 할까요?(재)
2		25 하룻밤만 재워줘		
3		50 황금빛 내 인생 (재)		40 SBS 뉴스 50 리턴(재)
4	05 특선다큐 3월 1일, 어느 가문의 선택(재)		05 나 혼자 산다 1~2부 스페셜	
5	00 KBS 뉴스 5 10 남도 스페셜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45 MBC 뉴스	00 미운 우리 새끼 1~2부(재)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질문 우리 사는 세상	30 2TV 생생정보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10 생방송 빛날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인형의 집	15 전생에 환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블24 55 추리의 여왕 시즌2(재)	55 세상기록 48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공사장립특집 인간과 습지 2부작 (1편 초록의 영도, 우포늪)			
10	35 숨터 40 KBS 뉴스라인	00 추리의 여왕 시즌2	00 3.1절 양극 특집극 절정 UHD	00 리턴
11	10 세계건강기행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먹웃지	10 해피투게더 1~2부	10 MBC 스페셜 <셀 위 맨스?>	10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20 인간극장 스페셜(재)	4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0 양극 3.1절 특집다큐 <독도 지도의 증언>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8:45 뽕빵 요리 버스
05:30 통일의 길 <북한 삼시세끼>	09:00 떡볶이
06:00 한국기행(재) <시선기행,포구에서 4부 다섯 살, 소년의 바다>	09:15 두다다콩
06:20 세계테마기행(재) <인상라, 모로코 4부 북대서양, 풍요와 낭만을 건다>	09:30 물랑
07:0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나미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다림쥐 첫바퀴 인생, 일벌레 머느리의 눈물>
07:30 띠띠뽀 띠띠뽀(재)	10:30 한국기행(재)
07:45 뽕뽕뽕 뽕뽕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참깨스프 닭고기구이와 아스파라거스 두부부침>
08:00 뽕뽕뽕 유치원 1~2	11:20 세계테마기행(재)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3:00 지식채널e	13:30 장수의 비밀
13:40 아빠대(재)	14:30 레인보우 루비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호기심 소녀 도트
15:15 파파리	15:15 파파리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쿠비주	16:30 뽕뽕 유치원(재)
16:45 뽕뽕 유치원 1~2(재)	1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7:45 뽕뽕뽕 뽕뽕	18:00 생방송 특1독! 보니하니1~4
19:00 사이언스타 Q <무중력 현상을 촬영하라>	
19:30 EBS 뉴스	
19:50 엄마를 찾지마(재)	
20:40 세계테마기행 <발칸의 매혹에 빠지다 크로아티아 4부 모든 길은 진실로 통한다>	
21:30 한국기행 <나는 겨울을 살기로 했다 4부 비밀의 숲>	
21:50 다큐 시선 <찾지 못 한 이름들>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일(음 1월 14일 壬辰)

<p>子</p> <p>48년생 여태까지 보류해 왔던 일을 재개할 수 있는 단계이다. 60년생 이익이 생기는 하지만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72년생 지리멸렬하니 당초부터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 84년생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행운의 숫자 : 01, 19</p>	<p>午</p> <p>42년생 거시적 관점으로 조망해야 대의를 도모할 수 있다. 54년생 복합적으로 고려해야겠다. 66년생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니라. 78년생 우연을 가장한 방문자가 보인다. 90년생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3, 87</p>
<p>丑</p> <p>49년생 쉽게 지나치기 쉬운 곳에 진귀함이 있다. 61년생 번거롭더라도 꼭 참여하는 것이 용이하다. 73년생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맞은 일이 뜻과 같이 되리라. 85년생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18</p>	<p>未</p> <p>43년생 단처가 될 만한 소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55년생 가장 시급한 일에만 우선적으로 집중하라. 67년생 전진한 자세와 태도가 절실하다. 79년생 행운이 따르리라. 91년생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후회한다. 행운의 숫자 : 83, 42</p>
<p>寅</p> <p>50년생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뒤돌아다보라. 62년생 자연스러움이 제일 무난할 것이니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74년생 이심전심으로 인해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86년생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으니 감안하고 들어가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8, 56</p>	<p>申</p> <p>44년생 지금 당장 상관없다고 하여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56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차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68년생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0년생 순발력 있는 임기응변이 절실한 날이다. 행운의 숫자 : 03, 66</p>
<p>卯</p> <p>51년생 중용의 입장에서 타협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다. 63년생 문서에 이로운이 있으니 잘 활용해 보자. 75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87년생 사정과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이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3, 46</p>	<p>酉</p> <p>45년생 똑 같은 판권이 반복되면서 전혀 실 틈을 주지 않는다. 57년생 도모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시기이다. 69년생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만이 생존을 담보할 것이다. 81년생 자기와의 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16, 61</p>
<p>辰</p> <p>52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을 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64년생 속도가 너무 빠르니 혼선이 우려된다. 76년생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다. 88년생 결연한 의지로 분명한 언행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04, 03</p>	<p>戌</p> <p>46년생 개별적인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58년생 결정적인 호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놓치지 않음이 이익이다. 70년생 좀처럼 오기 힘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인바 꼭 잡도록 하라. 82년생 직접 접해 봐야만 얻는 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68, 49</p>
<p>巳</p> <p>53년생 상당한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65년생 현저한 진척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77년생 상태로부터 오해받을 수도 있다. 89년생 아쉬움이 강하게 남지 않길 바라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44, 06</p>	<p>亥</p> <p>47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포용하는 것이야. 59년생 고요한 일상에 파문을 던지는 이가 보인다. 71년생 이것저것 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다. 83년생 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90, 38</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